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9년 10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종우, 차장 박영환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세계경제지표

		18.4/4	19.1/4	2/4	3/4	196월	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1.1	3.1	2.0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3	0.3	1.9	..	0.4	0.8	0.4	..
	산업생산(전기비, %) ¹⁾	1.0	-0.5	-0.5	..	0.1	-0.1	0.6	..
	수출(전기비, %) ¹⁾	-0.6	0.5	-1.1	..	-2.7	0.9	0.3	..
	ISM제조업(기준=50) ²⁾	56.9	55.4	52.2	49.4	51.7	51.2	49.1	47.8
	실업률(%) ¹⁾²⁾	3.8	3.9	3.6	3.6	3.7	3.7	3.7	3.5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¹⁾²⁾	23.3	17.4	15.2	15.7	17.8	16.6	16.8	13.6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3	0.4	0.2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7	0.9	0.5	..	0.8	-0.5	0.3	..
	산업생산(전기비, %) ¹⁾	-1.2	0.6	-0.7	..	-1.5	-0.4	0.4	..
	수출(전기비, %) ¹⁾	1.3	1.4	-1.0	..	-0.7	0.6
	제조업PMI(기준=50) ²⁾	51.7	49.1	47.7	46.4	47.6	46.5	47.0	45.7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8.8	106.0	104.1	102.5	103.3	102.7	103.1	101.7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4	6.4	6.2	..	-	-	-	-
	수출(전년동기비, %)	3.9	1.3	-1.0	-0.4	-1.3	3.3	-1.0	-3.2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8.3	8.3	8.5	..	9.8	7.6	7.5	..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5.9	6.3	5.8	..	5.8	5.7	5.5	..
	제조업PMI(기준=50) ²⁾	49.9	49.7	49.6	49.7	49.4	49.7	49.5	49.8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3	-2.2	-0.8	..	-5.9	-2.5	-2.3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7	2.1	3.0	..	3.3	2.8	2.9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전년동기비, %) ⁴⁾	1.5	0.3	-0.5	..	-1.8	-1.3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지표¹⁾

		19.5월	6월	7월	8월	9월	10.15일
전세계 MSCI		492.1	523.4	524.4	510.9	520.7	525.3
- 선진국		2,046.3	2,178.4	2,187.6	2,138.5	2,180.0	2,196.6
- 신흥시장국 (중국 ²⁾)		998.0	1,054.9	1,037.0	984.3	1,001.0	1,019.3
		2,898.7	2,978.9	2,932.5	2,886.2	2,905.2	2,991.0
VIX		18.7	15.1	16.1	19.0	16.2	13.5
환율	달러인덱스	97.8	96.1	98.5	98.9	99.4	98.3
	중국 ³⁾	6.91	6.87	6.88	7.15	7.14	7.08
	브라질 ³⁾	3.92	3.85	3.82	4.14	4.16	4.18
	인도네시아 ³⁾	14,358	14,135	14,017	14,169	14,186	14,162
국채금리 ⁴⁾ (%)	미국	2.12	2.01	2.01	1.50	1.66	1.77
	독일	-0.20	-0.33	-0.44	-0.70	-0.57	-0.42
CDS프리미엄(bp)	브라질	180.0	150.4	126.5	133.9	136.5	131.1
	인도네시아	115.3	90.3	78.1	89.2	90.5	85.9
	한국	37.2	32.3	28.1	32.4	33.4	32.2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15	2016	2017	2018	184/4	191/4	2/4	3/4	196월	7월	8월	9월
GDP 성장률 ¹⁾	28	29	3.2	2.7	0.9	-0.4	1.0	..	-	-	-	-
(민간소비)	22	26	2.8	2.8	0.8	0.1	0.7	..	-	-	-	-
(설비투자)	5.1	2.6	16.5	-2.4	3.2	-9.1	3.2	..	-	-	-	-
(건설투자)	6.9	10.0	7.3	-4.3	1.8	-0.8	1.4	..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4.1	3.9	1.9	4.3	-0.1	1.3	1.0	..	-1.6	-0.9	3.9	..
설비투자지수 ²⁾	6.8	1.9	14.5	-3.5	-1.1	-5.4	1.2	..	0.1	2.1	1.9	..
건설기성액 ²⁾	5.0	15.4	10.5	-5.3	-3.7	1.8	-1.8	..	1.5	-3.4	0.3	..
수출(통관) ³⁾	-8.0	-5.9	15.8	5.4	7.7	-8.5	-8.6	-12.2	-13.8	-11.1	-13.9	-11.7
- 일평균 ³⁾	-8.7	-5.9	17.3	5.2	-0.1	-6.4	-12.0	-14.1	-13.8	-14.6	-12.0	-16.0
제조업생산지수 ²⁾	-0.3	2.3	2.2	1.2	-1.4	-3.0	1.6	..	0.1	2.8	-1.5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9	2.6	1.9	2.1	0.4	0.3	0.0	..	-1.1	1.1	1.2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2.2	98.9	105.0	103.2	97.3	98.9	99.0	95.1	97.5	95.9	92.5	96.9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1	70	80	75	72	70	75	71	75	73	68	71
취업자수 증감 ⁶⁾	28.1	23.1	31.6	9.7	8.8	17.7	23.7	36.6	28.1	29.9	45.2	34.8
(제조업)	14.6	-2.1	-1.8	-5.6	-8.8	-14.3	-6.4	-7.6	-6.6	-9.4	-2.4	-11.1
고용률(원계열)	60.5	60.6	60.8	60.7	60.9	59.6	61.3	61.5	61.6	61.5	61.4	61.5
실업률(원계열)	3.6	3.7	3.7	3.8	3.4	4.5	4.1	3.3	4.0	3.9	3.0	3.1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 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농축수산물 및 공공서비스 가격의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으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8.4/4	19.1/4	2/4	3/4	19.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¹⁾	1.8 (0.0)	0.5 (-0.4)	0.7 (0.4)	0.0 (-0.1)	0.7 (-0.2)	0.6 (-0.3)	0.0 (0.2)	-0.4 (0.4)
▪ 농축수산물 (농산물)	7.1 13.6	0.2 1.3	1.2 1.6	-5.4 -8.7	1.8 3.2	-0.3 1.2	-7.3 -11.4	-8.2 -13.8
▪ 공업제품 (석유류 제외)	1.1 5.1	-0.7 -10.2	0.0 -3.5	-0.2 -6.0	0.0 -3.2	0.0 -5.9	-0.2 -6.6	-0.2 -5.6
▪ 전기·수도·가스	0.3	1.3	1.3	1.9	1.3	2.1	2.3	1.5
▪ 서비스	1.6	1.3	0.9	0.9	1.0	1.0	1.0	0.5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1	1.0	0.6	0.7	0.7	0.9	0.8	0.5
▪ 농산물·석유류 제외	1.3	1.1	0.9	0.8	0.9	1.0	0.9	0.6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4	2.3	2.1	2.0	2.1	2.1	2.0	1.8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와 주가는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19.5월	6월	7월	8월	9월	10.15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65	1.58	1.46	1.28	1.30	1.29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59	1.47	1.29	1.17	1.30	1.28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1.68	1.60	1.39	1.28	1.46	1.50
KOSPI ¹⁾	2,042	2,131	2,025	1,968	2,063	2,068
원/달러 환율 ¹⁾	1,191	1,155	1,183	1,211	1,196	1,185
(전월말대비 변동률, %)	1.94	-3.04	2.46	2.38	-1.24	-0.92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수도권에서는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8.4/4	19.1/4	2/4	3/4	19.6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	19.9	6.5	14.9	18.0	5.4	5.8	7.4	4.8
▪ 주택담보대출 ²⁾³⁾	13.2	7.9	10.6	12.2	4.0	3.7	4.6	4.0
▪ 기타대출 ⁴⁾	6.6	-1.5	4.4	5.8	1.5	2.2	2.8	0.9
주택 매매가격(%) ⁵⁾	0.3	-0.4	-0.5	-0.1	-0.1	-0.1	0.0	0.0
▪ 수도권 ⁶⁾	0.7	-0.5	-0.5	0.2	-0.1	0.0	0.0	0.1
(서울)	0.8	-0.6	-0.3	0.4	0.0	0.1	0.1	0.2
▪ 광역시 ⁷⁾	0.4	-0.2	-0.3	0.0	-0.1	-0.1	0.0	0.1
▪ 지방 ⁸⁾	-0.1	-0.4	-0.5	-0.4	-0.2	-0.2	-0.1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 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